



의안번호	제 2022 - 25호
보 고 연 월 일	2022. 12. 5. (제12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51차 전체회의	1
1. 일시·방식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관세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2
1. 관세포탈 양형인자 검토	2
2. 무신고 수입 등 양형인자 검토	17
3. 무신고 수출 등 양형인자 검토	24
4. 밀수품 취득 등 양형인자 검토	32
5. 다수범죄 처리기준 검토	38
6. 집행유예 기준 검토	39
III.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43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양형인자 검토	43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양형인자 검토	57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양형인자 검토	64
4. 집행유예 기준 검토	68
IV. 향후 일정	71

【별첨】

이재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김한울,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최형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인자 등”

강선주,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의견”



I. 제151차 전체회의

1. 일시·방식

- 일시: 2022. 11. 21.(월) 15:00 ~ 18:10
- 방식: 비대면 화상회의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이재신,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II. 관세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1. 관세포탈 양형인자 검토

가. 개요(다툼 있는 부분은 붉은색 표시, 이하 동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형 인 자		○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 리라 예상되는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 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 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가) 문제의 소재

- 관세범죄의 조직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환
경범죄, 식품·보건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
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에 의견 일치
- 다만, 정의규정에 관하여 견해 대립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이하 ‘예시규정 ①’)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이하 ‘예시규정 ②’)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이하 ‘예
시규정 ③’)
 -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이하 ‘예시규정 ④’)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예시규정 ②)

① 제1안(6인) : 포함

- 예시규정 ②(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유죄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음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유지

② 제2안(5인) : 불포함

- 예시규정 ②는 문언 자체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 삭제되어야 함

(다)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예시규정 ③)

① 제1안(7인) : 포함

- 예시규정 ③은 공범비율이 높은 유사수신행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같이 조직적 범행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군에서 '단순 가담'이라는 별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된 규정인데, 여기서는 '단순 가담'이라는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하나의 양형인자로 통합시킨 것임
- 관세포탈 등 관세범죄에서는 다른 범죄보다 실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안(4인) : 불포함

- 대부분의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타인의 강압이나 위

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예시 규정 ①)',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예시 규정 ②)' 두 가지를 예시로 제시하고, 식품·보건범죄에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예시 규정 ④)'를, 환경범죄에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예시 규정 ③)'가 각 추가되어 있음. 그러나 성격이 다른 범죄의 각 양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합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예시 규정 ②)'를 예시로 두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동일한 전제에서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예시 규정 ③)'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색함
- 제1안에 따르면 무신고 수입 등 일련의 관세범죄에도 같은 내용의 정의규정이 들어가는데, 무신고 수입은 수출국에서 밀수품을 소위 '커튼치기' 등 정상품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선적하는 것에서부터 국내로 몰래 반입하여 밀수품 판매자에게 배송하기까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에 총책, 국내 운반책, 판매 알선책 등으로 구성된 밀수입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으로 의율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범죄집단에 속한 운반책의 경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보아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할 것인지 충돌되는 문

제가 생길 우려도 있음

(라)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예시규정 ④)

① 제1안(7인) : 포함

- 관세포탈은 피용자나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로 보기 어렵더라도 위 예시규정과 같이 수동적·소극적인 역할만 하였다면 피용자나 부하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다른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참조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고, 그 정의규정 중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있음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를 각각 특별양형인자로 두고 있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의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

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제2안(4인) : 불포함

- 같은 유형인 조세포탈 양형기준에서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고, '소극 가담(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은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는바, 양형인자 설정 시에는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이 타당하고, 특히 일반감경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변경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예시규정 ①, ②와 예시규정 ③, ④는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큼. 특히 예시규정 ④는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처벌이 너무 가벼워질 우려가 있음
-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서도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데, 그 유사 범죄인 장물범죄에서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두 가지만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규정함이 타당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견해 일치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견해 일치

- 관세법규의 복잡성과 기술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환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4)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 견해 일치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5)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견해 일치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형법 제11조가 2020. 12. 8. 개정되었고(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위 개정 이후 신설 또는 수정된 범죄군(주거침입범죄 등)에서 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관세범죄의 성격,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을 둘 필요는 없음

○ 정의규정 불필요

(6)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조직성, 형사정책적 필요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환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7)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견해 일치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관세의 부과·징수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특별가중인자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특성(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 견해 일치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3)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견해 일치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정의규정 불필요

(4)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견해 일치

- 관세사 제도의 목적,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의 관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 처벌법이나 세무사법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¹⁾은 없으나, 관세사의 교사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세관공무원의 범행가담은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으므로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라. 일반감경인자

(1) 범행동기 관련 인자 ⇨ 견해 대립

(가) 제1안(9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후문은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행을 알선·중개한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형의 1/3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안(2인):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관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유사 범죄인 조세범죄에서는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및 ‘소극 가담’만을 한정하여 일반 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범죄와 같이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관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및 ‘소극 가담’을 특정하여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함이 적절함
- 일반감경인자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전체 양형기준에서 식품·보건범죄 등에만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1안에 의할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는데, 각 정의규정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감경인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소지가 있음
 - 특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문구적 해석으로는 모든 양형참작사유가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제1안도 이를 경계하기 위해 그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

르게 된 경우'라는 특별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으나,

- 이로 인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인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의 예시들과 비교하여 특별/일반 양형인자로 분류될만한 경중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해석 범위도 더욱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2) 소극 가담 ⇨ 견해 대립

(가) 제1안(7인) : 제외

-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자는 안.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규정 ③, ④에 소극 가담이라는 양형인자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감경인자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다는 견해

(나) 제2안(4인) :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예시규정 ③, ④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일반감경인자인 '소극 가담'으로 반영하자는 안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포탈한 판례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견해 일치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이지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4)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견해 일치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정의규정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일반적 수사 협조 ⇨ 견해 일치

-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이지만, 관세범죄의 조직성, 형사정책적 필요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일반가증인자

(1)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보호법익(관세의 부과·징수의 적정),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증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한 경우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행정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증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3)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행정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증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4)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행정법적 성격,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식품·보건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5)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견해 일치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정의규정 불필요

2. 무신고 수입 등 양형인자 검토

가. 개요

(1)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2) 부정 수입

- 일반감경인자에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과 동일함 → 전문위원단 견해 대립 내용도 동일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예시규정 ②, ③, ④의 찬반) → 6:5, 7:4, 7:4

(2)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견해 일치**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견해 일치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 견해 일치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입의 규모에 따라 가

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 중범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다. 특별가중인자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보호법익(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 통관절차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 양형실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 식품·보건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 견해 일치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입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

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
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라. 일반감경인자

(1)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가) 제1안(8인) : 포함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
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
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우
- 자금 사정 등으로 원자재의 정상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안(3인) : 불포함

○ 일반감경인자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양형인자로서 부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와는 달리 우발적 사정으로 밀수입 범행을 저
지르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삭제함이 타당

(2) 소극 가담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불포함/포함) → 7:4

(3)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 견해 일치

- 무신고 수입 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고 정당한 관세의 확보는 부수적인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위조상품, 마약과 같이 유통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밀수입 범행의 경우에는 유통이 금지되는 까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감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의규정에 이를 명확히 함
- 정의규정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 당시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일반가중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견해 일치

- 관세범죄의 영리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증권·금융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벌금형 또는 몰수추징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등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무신고 수출 등 양형인자 검토

가. 개요

(1)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3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	행위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반 양 형 인 자		<p>사정이 있는 경우</p> <p>○ 소극 가담</p>	<p>한 경우</p> <p>○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p> <p>○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p>
	행위자 /기타	<p>○ 진지한 반성</p> <p>○ 형사처벌 전력 없음</p> <p>○ 일반적 수사협조</p>	<p>○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p> <p>○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p>

(2) 부정 수출

- ▣ 특별가중인자에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가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등’과 동일함 → 전문위원단 견해 대립 내용도 동일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행위	<p>○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p> <p>○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p> <p>○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p> <p>○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p>	<p>○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p> <p>○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p> <p>○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p> <p>○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p>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2유형)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예시규정 ②, ③, ④의 찬반) → 6:5, 7:4, 7:4

(2)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견해 대립

(가) 제1안(6인) : 포함

-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수출품 자체가 갖는 폐해 및 위험 발생에 관한 특별가중인자로는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존재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출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안(5인) : 불포함

-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서는 ①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 점, ②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와 달리 무신고 수출 등 범죄에서는 ① 수출한 물품의 유통 여부는 타국의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일 뿐 국내에서의 아무런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타국 세관에서의 통관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타국가의 법령에 따라 유통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면 타국가의 어떤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② 이미 무신고 수출된 이상 사후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도 관세범죄에서는 국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의 문서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 또는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수입자가 보낸 서류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한 물품의 유통 여부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된다면,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출하여 양형자료로 낼 것이 예상되고, 그 진위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형자료의 진위 여부가 문제됨
- 이때 재판부 또는 공판검사가 해당 물품이 통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타국의 세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보통 회신을 거의 주지 않는 국가가 많고, 가사 회신을 해주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이 초래될 것이고,
- 만일 피고인이 해당 물품이 통관은 되었으나, 타국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압수된 관계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역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이 초래될 것임
-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내지 실무적 이유에 비추어 수출 물

품의 타국에서의 유통 여부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견해 일치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출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유형) ⇨ 견해 일치

- 3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출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다. 특별가중인자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견해 일치

-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3유형) ⇨ 견해 일치

- 3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출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3)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부정수출 중유형에 한함) ⇨ 견해 일치

- 부정 수출의 경우 수출의 규모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적용은 없으나, 무신고 수출 범죄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

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불필요

라. 일반감경인자

(1)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가) 제1안(8인) : 포함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 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입국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수입국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안(3인) : 불포함

- 일반감경인자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양형인자로서 부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와는 달리 우발적 사정으로 밀수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삭제함이 타당

(2) 소극 가담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불포함/포함) → 7:4

4. 밀수품 취득 등 양형인자 검토

가. 개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p>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 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p>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예시규정 ②, ③, ④의 찬반) → 6:5, 7:4, 7:4

(2)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견해 일치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

에 있는 경우

-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견해 일치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밀수품 취득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견해 일치

-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 밀수품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신고 수입 범죄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다. 특별가중인자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견해 일치

- 무신고 수입/수출 등 범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견해 일치

-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 밀수품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신고 수입 범죄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3)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견해 일치

- 보따리상 이용 등 밀수품 취득범이 실질적인 배후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물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정한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밀수품 취득 등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일반감경인자

(1) 범행동기 관련 ⇨ 견해 대립

(가) 제1안(9인)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는 안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 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친족간 범행 등을 유리한 사

정므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장물범죄에서는 본범과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특별감경인자인데, 관세범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밀수품 취득, 운반, 보관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안(2인)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신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는 안
-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 다른 관세범죄와는 달리 유사 범죄인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이 타당
- 정의규정 별도로 두지 않음

(2) 소극 가담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불포함/포함) → 7:4

5. 다수범죄 처리기준 검토 ⇨ 견해 일치

03¹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관세포탈 범죄,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부정 수입 범죄,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부정 수출 범죄, 밀수품 취득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조세범죄 등과 같이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및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되, 하한을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함

6. 집행유예 기준 검토

가. 관세포탈 ⇨ 견해 대립(양형인자와 논의 동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관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소극 가담 ○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관세범죄의 양형인자로 설정한 양형요소 및 다른 범죄군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관세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반영함
- '피고인이 고령'은 그 의미의 불명확성, 재범 위험성과의 관

련도 등을 이유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디지털 성범죄 등) 이를 반영함

-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이상'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벌금'을 '벌금(집행유예 포함)'으로 명확히 함
- 이하 무신고 수입, 수출 및 밀수품 취득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 무신고 수입 등 ➡ 견해 대립(양형인자와 논의 동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무신고 수출 등 ➡ 견해 대립(양형인자와 논의 동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밀수품 취득 등 ➡ 견해 대립(양형인자와 논의 동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Ⅲ.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양형인자 검토

가. 개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 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가) 문제의 소재

-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에 의견 일치
- 다만, 정의규정에 관하여 견해 대립(※ 관세범죄 양형기준과 논의가 동일함. '소극 가담'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자는 제2안은 예시규정 ③, ④를 '소극 가담'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예시규정 ①)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예시규정 ②)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예시규정 ③)
-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예시규정 ④)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예시규정 ②)

① 제1안(6인) : 포함

② 제2안(5인) : 불포함

(다)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
만을 분담한 경우(예시규정 ③)

① 제1안(7인) : 포함

② 제2안(4인) : 불포함

(라)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
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
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예시규정 ④)

① 제1안(7인) : 포함

② 제2안(4인) : 불포함

- 업무방해죄에서는 위 예시규정을 ‘소극가담’이라는 일반감
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견해 대립

▣ 정의규정

① 제1안(8인)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행동기가 가능한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도 다양한 동기에서 범행 가능하므로 특별감경인자로 포함시킴
-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을 기초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특수성 가미
- 아래 하급심도 주된 감경사유로 이를 참작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그룹웨어에 침입
 - 자신과 동료 여직원에게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대화가 이뤄진 것을 목격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취득
 - 유기견 보호단체의 운영자가 소속 회원의 후원금 불법사용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블로그에 접속 후 그 내용을 다른 회원에게 전송

② 제2안(3인)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삭제 또는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부당한 대우’라는 주관적 평가가 고려되는 인자를 특별양형인자의 정의 규정으로 두기는 곤란하고, ‘범행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도 두 번째 정의 규정 중 '공공의 이익'에 포섭될 수 있거나 긴급피난의 법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를 삭제하거나 정의 규정을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로 함이 상당

(3)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견해 일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침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과불법의 정도가 작아 포함 타당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피해 또는 폐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는 점을 고려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표현 사용

(4)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견해 일치

-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고, 행위불법이 가볍다는 측면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하급심에서도 주된 감경사유로 참작하고 있음
 - 유포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 참작한 사례
 - 홈페이지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

의 첨작한 사례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양형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대부분 범죄의 예에 따라 정의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5)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견해 일치

- 모든 범죄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6)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견해 일치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
- 자수: 형의 임의적 감경, 면제 사유(형법 제52조 제1항)
-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암수 범죄 적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

(7)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견해 대립

■ 정의규정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제1안(9인)

-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일반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규정하는 안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²⁾ 2-1군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및 일반감경인자 규정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개

2) 2021. 8. 17. 제111차 양형위원회, 2021. 10. 8. 제112차 양형위원회 의결 내용

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2-1군(개인적 법익도 상당 정도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 예: 업무방해범죄 중 경매·입찰방해,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중 채권추심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또는 2-2군(나머지, 예: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망 관리자의 개인적 법익도 상당 정도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2-1군에 해당**

② 제2안(2인)

- **일반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규정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양형인자에서 삭제하는 안**
- 정보통신망 범죄 중 대유형 1로 분류된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범죄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적 법익보다는 사회적 법익 보호에 더 중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즉 개인의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침입이 그 불법성의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관련 논의시 범죄 구분 중 2-1이 아닌 2-2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함이 상당함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다. 특별가중인자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견해 일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참작
- 정의 규정
 - 업무방해,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의 정의규정을 기초로 범죄의 특수성 가미하여 정의규정 도출
 - 계획적 범행과 고도의 지능적·전문적 범행을 반영함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양형자료조사 대상판결³⁾에서 조직적

범행의 비율이 적지 않아(약 43%) 그 특성을 반영함

(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견해 대립

-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하고, 아래 하급심도 감경사유로 참작함
 -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을 한 사안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그 자체를 즐겨서 범행한 경우 등의 사안을 범행동기 관련 가중인자로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정의 규정 : 견해 대립(아래 밑줄 규정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① 제1안(9인) : 제외

- 대부분의 범죄가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인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정의규정을 포함하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라는 특별가중인자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짐

② 제2안(2인) : 포함

- 정보통신망법위반 양형자료조사 대상판결에서 범행 동기 중

3)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대상,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이하 동일

가장 많은 것이 경제적 이익이고, 업무방해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정의 규정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3)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견해 일치

- 경매·입찰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참작
- 양형인자의 명칭
 -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음

죄명	특별감경인자	정의규정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사문서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문서범죄 중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허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업무방해범죄 중 경매·입찰방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사회적·경제적 피해’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점, 앞서 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의 균형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가 중대한 경우’ 표현 사용

○ 정의 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견해 일치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5) 동종 누범 ⇨ 견해 일치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라. 일반감경인자

(1) 소극 가담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불포함/포함) → 7:4

(2)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견해 일치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정의규정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견해 대립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논의 결과에 따름
- 정의 규정 없음

(4) 일반적 수사 협조 ⇨ 견해 일치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조직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일반가증인자

(1)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견해 일치

- 사기, 횡령·배임, 공문서, 식품·보건범죄 등 다수 범죄 일반가증인자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경우에도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범죄 혐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반가증인자로 규정하여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억제함이 타당

(2)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견해 일치

- 업무방해 등 다수범죄에서 일반가증인자

(3)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견해 일치

- 처벌불원이 감경인자로 있는 경우 대부분 일반가증인자에 포함
- 정의규정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양형인자 검토

가. 개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일반적 수사 협조 	<p>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나.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논의 결과 동일함(예시규정 ②, ③, ④의 찬반) → 6:5, 7:4, 7:4

(2)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견해 일치

-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1유형),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 모두 다양한 동기에서 범행 가능하므로 포함 타당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1유형)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나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견해

일치

- 행위불법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은 특별감경인자로 삼을 필요 있음
- 유사한 범죄의 사례(폭력범죄 중 협박범죄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중 채권추심법 위반 '폭행·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따라 정의규정은 두지 않음

(4)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 견해 일치

- 행위불법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은 특별감경인자로 삼을 필요 있음
- 양형인자 표현 자체로 그 의미가 분명하므로 정의규정은 두지 않음

(5)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 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견해 일치

- 앞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서 본 바와 같음

(6)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1유형) ⇨ 견해 일치

-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1유형)은 개인적 범익에 관한 죄로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름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 불법 사금융 범죄

로서 순수한 국가·사회적 법익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이 양형인자로 고려될 여지가 없음

다. 특별가중인자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견해 일치

-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참작
- 계획적 범행, 지능적·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의 특성을 반영함
- 정의규정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같음

(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견해 일치

-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참작
- 정의 규정
 -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1유형)은 유사한 범죄인 협박 범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참조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범행이고, 상당수의 양형이유에서 이를 죄질 불량 사유로 설치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궁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참작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1유형)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1유형)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견해 일치

- 정의규정은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1유형)과 유사한 범죄인 협박범죄 참조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4) 범죄로 인한 유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견해 일치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과 유사한 범죄인 대부업법위반범죄(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참조
- 범죄로 인한 '유통액'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므로 범죄로 인한 '수익'보다 간명한 적용이 가능함 → '범죄로 인한 유통액' 표현 사용
- 유통액이나 수익이 많지 않지 않더라도 소액의 다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범행의 특징을 감안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유통액이 매우 큰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자금을 유통하여 준 상대방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견해 일치

- 앞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서 본 바와 같음

(6) 동종 누범 ⇨ 견해 일치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라. 일반감경인자

(1) 소극 가담 ⇨ 견해 대립

- 관세포탈과 논의 결과 동일함(불포함/포함) → 7:4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견해 일치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 범죄 구조상 유통액과 실제 이득액이 다른 경우가 많고, 공범 내 지위에 따라 서로 이득액이 상이함
-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을 양형요소로 참작한 사례 多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과 유사한 범죄인 대부업법위반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에 모두 포함
- 공범 내 지위가 낮아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와 중복 적용될 수 있고, 재판기록상 실제 이득액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 일반 감경인자로 참작

(3)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견해 일치

- 앞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서 본 바와 같음

(4)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1유형) ⇨ 견해 일치

-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1유형)은 앞서 본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의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므로 제외

마. 일반가중인자

(1)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견해 일치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전형적이고, 이는 유통액과 범죄수익을 쉽게 증가시키는 수단임
- 유사한 범죄인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중 대부업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삼음
-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1유형)은 해당할 여지없어 제외

(2)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견해 일치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2유형)에서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하여 범죄수익 은닉을 억제함이 타당
- 유사한 범죄인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중 대부업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삼음
-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1유형)은 해당할 여지없어 제외

(3)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 앞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서 본 바와 같음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양형인자 검토

가. 개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양형인자 원용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유사성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① 정보통신망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 정보 취득·누설 등 + ②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권한 없이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통신비밀 취득(수집)·이용·제공(누설) 등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중 ② 부분을 제외하면 구조가 유사함

(2)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양형인자를 원용하되, 일부 정의규정 다르게 정함

다.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견해 대립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논의 결과 동일함(예시규정 ②, ③, ④의 찬반) → 6:5, 7:4, 7:4

(2)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견해 일치

- 구성요건이 다양하여 여러 가지 동기에서 범행 가능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견해 일치

- 결과불법의 정도가 작아 포함 타당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특별가중인자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견해 일치

- 결과불법의 정도가 크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타당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집행유예 기준 검토

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견해 대립(양형인자와 논의 동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견해 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견해 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IV. 향후 일정

- 일시: 2022. 12. 26.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회의실
-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검토